

2022년  
기획연구

## Part. 5

# 국제 해외 기부 경향 분석: 해외 기부의 다양성 및 포괄성



책임 연구원 **정복교** 케인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공동 연구원 **윤정아** 케인대학교





## 책임 연구원

---

### 정복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ea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e Professor

---

### 학력

University of Pittsburgh,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h.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New Jersey,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Robert Morris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Pennsylvania, Adjunct Faculty

Duke University, Sociology and Public Policy, Visiting Scholar Fellowship

### 연구실적

- Jeong, B. & Kim, S. (2021). "NPO/NGO Educ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Public and Nonprofit Affairs*. 7(2), 173-191.
  - Jeong, B. & Kim, S. (2021).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ollaboration against COVID-19 in South Korea: A Single or Multiple Actor Play?" *Nonprofit Policy Forum*. 12(1), 165-187.
  - Compion, S., Cnaan, R., Brudney, J., Jeong, B., Zhang, C., and Haski-Leventhal, D. (2021). "Young, Fun, and Free: Episodic Volunteers in Ghana, South Africa and Tanzania,"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16.
  - Jeong, B., & Kim, S. J. (2019). NPO/NGO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Driv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9(1), 39-62.
  - Jeong, B. (2015). "Developmental state and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 model," *Social Enterprise Journal*, Special Issue-An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Country Models: A Critique and Expansion. Vol. 11 (2), pp. 116-137. DOI: 10.1108/SEJ-01-2014-0005.
  - Jeong, B. & Kearns, K. (2015). "Accountability in Korean NPOs: Perceptions and strategies of NPO leader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6 (5), pp 1975-2001. DOI: 10.1007/s11266-014-9492-8.
-



## 공동연구원

---

### 김 성 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

### 학력

School of Social Work, Indiana University, Ph.D.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SSA.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주요경력

Monmouth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ssistant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djunct facul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Research Fellow

### 연구실적

- Kim, S. J., & Jeong, B. (2021). University-based nonprofit and nongovernment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Nonprofit Education and Leadership*.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https://doi.org/10.18666/JNEL-2021-10982>
  - Cai, Q., Okada, A., Jeong, B., & Kim, S. J. (2021). Civil Societ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hina Review*, 21(1), 107-137.
  - Lee, L. & Kim, S. J., (2020).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giving to East Asian nonprofi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managers. *Advances in Social Work*, 20(1), 95-113.
  - Kim, S. J., & Jung, J. K. (2019). Korean nonprofit/non-government sector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Voluntaristics Review: Brill Research Perspectives*, 4(6), 1-71.
-



## 공동연구원

---

### 윤정아

Kea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

#### 학력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Rutgers University-Newark, MPA, Ph.D.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주요경력

Rutgers University-Newark, 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Adjunct faculty  
한국전력공사 근무

#### 연구실적

- Yun, J., Hamidullah, M. & McDougale, L. (2020). 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Public Administration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26(1), 73-95. <https://doi.org/10.1080/15236803.2019.1565593>
  - Yun, J., Lee, Y., & Mastracci, S. (2019). The Moderating Effect of Female Managers on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for Public Employees in Gendered Organizations: Evidence from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8(4), 535-564. <https://doi.org/10.1177/0091026019829163>
  - Hamidullah, M. F., Yun, J. A., McDougale, L. M., Shon, J., Yang, H., & Davis, A. (2021). Exploring individual predictors of variation in public awareness of expressive and instrumental nonprofit br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e01710. <https://doi.org/10.1002/nvsm.1710>
  - Kang, D., Yun, J., & Kim, P. (2019). Gender Diversity and Public Employees'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Personnel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2), 317-340.
-

## 요약

본 연구는 2020 글로벌 필란트로피 추적 보고서(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 연구와 유엔 OCHA의 자금추적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 이하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와 공여국 및 수원국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히 해외 기부의 포괄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기관 중심의 해외 기부 현황 분석에서 벗어나 민간 주체, 시민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기부까지 포함하는[포괄성(Inclusiveness)] 해외 기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지리적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 또는 분산되는 정도[다양성(diversification) 및 탈집중성(non-concentration)]까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를 개발하여 각 나라의 해외 기부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연구 결과,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주요 서구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이라도 유럽연합 국가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를 통한 다양성 분석 결과 해외 기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다양성 지표는 높게 측정된 국가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국가별 해외 기부 규모와 수원국/수원단체들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각 국가가 강조하는 해외 기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기부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는지 아니면 편중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는 향후 국제 개발 및 해외 기부 분야 학계 및 실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글로벌 필란트로피, 해외 기부, 해외 기부 보편성,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 국제 비교

## I. 들어가며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1세기에는 모든 분야의 국가적 이슈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므로 국가의 사회적 문제를 자국 내 자원 동원은 물론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특히 해외 기부도 국제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인, NPO/NGO단체, 기업, 재단, 또는 국제 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국가들의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는데, 1960년에 시작한 ODA 프로그램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에 대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ODA의 주요 수원국 중 하나로, 1950년 한국전쟁 전후부터 1990년대까지 ODA로부터 약 127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창설함으로써 수원국에서 벗어나 공여국으로서 해외 기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Kim & The Beautiful Foundation, 2020).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에 의하면(ibid), 2007년 한국 기부자의 9.5%가 해외에 기부하였는데, 이 비율은 2018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

한편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부 주도의 ODA 이외에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사회적 이슈에 필란트로피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여 왔으나, OECD의 ODA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 이외에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해외 기부 사업 참여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 기부 사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연구 자료는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글로벌 번영 센터(Center for Global Prosperity)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Index of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IGPAR)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ODA 및 해외 송금 규모

를 파악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활동에 관한 지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허드슨 연구소의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에 관한 연구는 2016년 총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기부 사업의 규모를 측정하여 발표한 「글로벌 필란트로피 및 송금 지수(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9판」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으며,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인디애나 대학의 필란트로피 연구소로 이전되어 글로벌 필란트로피 추적 보고서(Global Philanthropy Tracker, 이하 GPT)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 계속 진행되었다. GPT 연구에서는 ODA 규모 및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NGO/NPO 단체가 제공하는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Philanthropic Outflows), 공익성 민간 투자(Private Capital Investment, 이하 PCI)를 포함해서 각 국가의 전체 해외 기부 현황을 조사하였다.

GPT 프로젝트 이외에 해외 기부 트렌드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유엔(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 인도지원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OCHA)에서 제공하는 재정확인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 이하 FTS)가 있다. FTS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인도적 기금 지원 흐름을 집계한 자료로서, 각 정부의 해외 지원 기금, UN의 인도적 지원 기금, UN 기관, 국제 NGO 및 다른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기금을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FTS 데이터는 기부자(정부 및 민간 기관)와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당사자(UN 기관, 적십자사 기관, NGO 및 시민사회단체 기관 등) 사이의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준다. FTS 데이터는 자금 모금 및 집행의 진행 단계를 인도주의 지원 요청 및 대응 플랜에 근거해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을 한다(Financial Tracking Service, n.d). FTS는 각 국가의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는 해외 기부 중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자료만 수집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행위자 및 기관에 관한 정보를 섹터, 기관의 유형, UN/NGO 기관의 관여 등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20 GPT 보고서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되면 해외 기부금의 수준과 내역, 자금의 흐름을 보다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GPT 데이터를 통해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FTS 데이터를 통해 해외 기부가 어느 정도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외 기부의 정량 비교를 넘어서서 해외 기부의 다양성까지 분석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기부 분산성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실제로 실증 자료를 통해 이를 산정함으로써

써 향후 해외 기부 다양성 및 보편성 측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해외 기부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과 초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 첫째, 해외 기부가 이루어지는 양태와 수준에 있어서의 포괄성(inclusiveness) 분석이다. 현 시기에는 국가 기관 중심으로 해외 기부가 일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해외 기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간 단체, 개인 단위의 민간 지원, 송금, 투자 등의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며, 이를 파악해 해외 기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기부의 다양성(diversification) 및 탈집중(non-concentration)을 반영하는 연구이다. 해외 기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기부 국가와 해당 국가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필란트로피적 관심의 다양성/보편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2020 GPT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의 해외 기부 사업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사업의 수원국/수원단체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국가별 해외 기부 규모와 수원국/수원단체들의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고, 각 국가가 강조하는 해외 기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 사회의 해외 기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디애나대학의 2022 GPT 보고서에 사용된 각 나라의 해외 기부금 데이터와 FTS의 자료 중 기부금 제공 국가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각 나라의 해외 기부 규모 및 기부금 제공 국가(이하 공여국)와 기부금 수령국(이하 수원국)을 서로 매칭하였다.

인디애나대학의 GPT 데이터는 총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8년 해외 기부금 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서, GPT에서 정의하는 해외 기부금은 1) 각 나라의 기부자(개인, 기업, 재단, 또는 다른 기부금 배분 단체 등)가 다른 나라의 개인, 비영리단체 및 유관 협력 기관에 제공한 기부금과, 2) 외교 문제, 인도적 지원, 국제 관계 이해 도모 또는 국제적 연대 증진과 같은 광범위한 범주의 국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기부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인디애나대학에서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해외 기부(cross-border philanthropy).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이 필란트로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송금한 기부 금액을 포함하였다. 총 47개 나라의 해외 기부 트렌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32개 국가의 해외 기부에 관한 정보는 각국의 통계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수집하였다. 한편 인디애나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을 통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해 반영하였다. 둘째, ODA. OECD가 매년 출판하는 OECD 국가의 ODA 자료로부터 총 37개 국가의 ODA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송금.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2018년 해외 송금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해외 근로자의 임금 및 개인 송금 총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세계은행에서 측정한 해외 송금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의 자료를 근거로 추출하였는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만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PCI가 포함되었는데, OECD에서 제공하는 민간의 해외 투자금액을 참조하였다. OECD에서 제공하는 PCI 자료는 직접 투자, 국제 은행 대출, 채권 대출 및 기

타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FTS 데이터는 1992년 UN 총회 결의 제 46/182호의 결의안에 의해서 UN 산하 기구인 OCHA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로서 각국의 인도주의적 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FTS는 기부금을 제공하는 국가 및 단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수원국 및 수원단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S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총 186개 나라가 수령한 해외 기부 금액을 파악하고 기부금의 출처를 취합하였다.

GPT 자료에서는 각국 정부 및 민간 주체(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공익 목적의 기부에 관한 자료와 사회적 투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FTS 자료에서는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예, 각종 재난 구호)을 대상으로 기부자 주체 유형에 대한 정보(정부 기관(중앙 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기구, UN 기구, 민간 기관, 민간 재단, 개인 등) 및 구체적 기부/자금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별 해외 기부 주체와 기부 금액, 기부 제공처, 기부금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FTS 자료는 자금 모금 및 집행의 진행 단계를 함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 호소 및 대응 플랜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S에서 제공하는 국가 간의 해외 기부에 대한 데이터 중 해외 기부 수령 상위 10개 수여국과 단체를 정리하여(기부금 출처, "Funding by Source") 국가 간의 해외 기부 흐름을 살펴 보았다. FTS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186개 국가 중 지원받은 자금 출처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는 127개이며, 이들 127개 수원국에 대한 기부금 출처 정보를 정리하였다. 포함되지 않은 59개 국가는 공여국 및 자금에 관한 자료가 없는 국가들이다.<sup>1)</sup>

또한 FTS 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수원국의 주요 기부금 공여국에 관한 정보에서는 평균 95.2%의 기부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었다(최대 100% 알바니아 포함 52개국 ~ 최소 56.1% 1개국 감비아). 127개 수원국 중 공여국에 대한 정보가 80% 미만인 나라는 7개 국가이다. 이들 7개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수원액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방글라데시 79%, 레바논 78%, 팔레스타인 77%, 나이지리아 74%, 시에라리온 71%, 라이베리아 64%, 감비아 56%).

1) 포함되지 59 국가는 자금 출처 정보가 FTS에 없는 경우이며, 이들 59개 국가 중 (A) 21개 국가는 본 연구에 포함된 공여국이지만, 자금 출처 정보가 FTS에 없는 경우이며, (B) 38개 국가는 본 연구에 포함된 공여국도 아닌 경우이다. 그리고 (A)의 21개 국가 중 5개 국가 (중국,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OECA DAC 회원국이 아닌 경우이며, (B)의 38개 국가 중 6개 국가 (체코,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OECD DAC 회원국인 경우이다.

### III. 연구 결과

#### 1. 국가별 해외 기부 트렌드: 2020 GPT 연구 결과 요약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0년 GPT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에 포함된 총 47개 국가의 해외 원조 총액은 약 913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송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체 해외 원조 중 57.6%(약 525조 9천억 원)는 해외 송금 금액, 21%(약 191조 7천억 원)는 ODA 13.3%(약 121조 원)는 PCI 금액, 그리고 8.2%(약 74조 5천억 원)는 개인 또는 NPO/NGO가 제공한 해외 민간 기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해외 원조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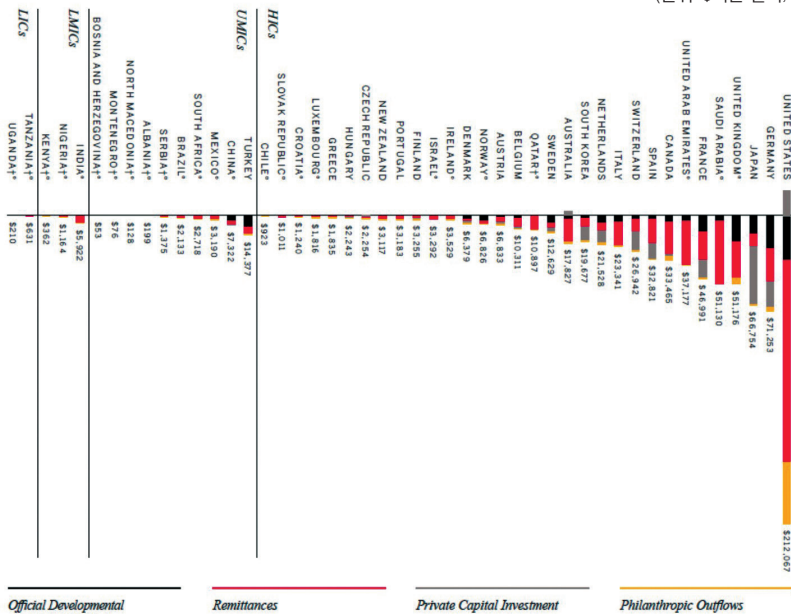
[출처]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

또한 해외 원조 규모 상위 20개국 중 대륙별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 국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동 국가(4개국), 아시아(3개국), 북아메리카 국가(2개국), 오세아니아(1개국)로 나타났다<sup>2)</sup>.

2020년 현재 한국은 47개 국가 중 13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중국보다는 많은 규모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인 북유럽 및 서양 선진국보다 더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 중 해외 원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국가별 해외 원조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자료 기준)



Sourc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Data: ODA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from the OECD; Remittances from World Bank; Philanthropic outflows from various sources research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nd shared by partner organizations for some economies. See Appendixes for specific data sources for each economy included.  
 Notes: HICs: High-income countries; LMICs: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LICs: Low-income countries  
 † Countries that did not have ODA estimates / \* Countries that did not have estimates on private capital investment

2)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은 터키보다 적은 규모의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적게 제공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포함된다.

아래 [그림 3]은 해외 원조를 책정하는 항목 중 개인 및 NPO/NGO 등 민간 단체들이 제공하는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ODA, 송금, 그리고 PCI는 각 나라의 경제 구조 및 경제 상황,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지원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자선적 해외 기부의 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준에서의 순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3]에서는 각 나라의 민간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만을 분석한 결과인데, 해외에 자선적 목적의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2위 국가(영국)와 비교해 약 10배 이상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476억 달러). 다음으로 영국(약 50억 달러), 캐나다(약 29억 달러), 독일(약 28억 달러), 네덜란드(약 10 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필란트로피 기부가 많은 나라들 대부분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이었으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DAC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 및 NPO/NGO 등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금액 규모는 상당히 큰데, 총 47개 나라 중 7번째로 많은 필란트로피 기부를 개인 및 민간 단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전체 해외 원조 규모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이지만 개인 및 민간 단체를 통한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금액은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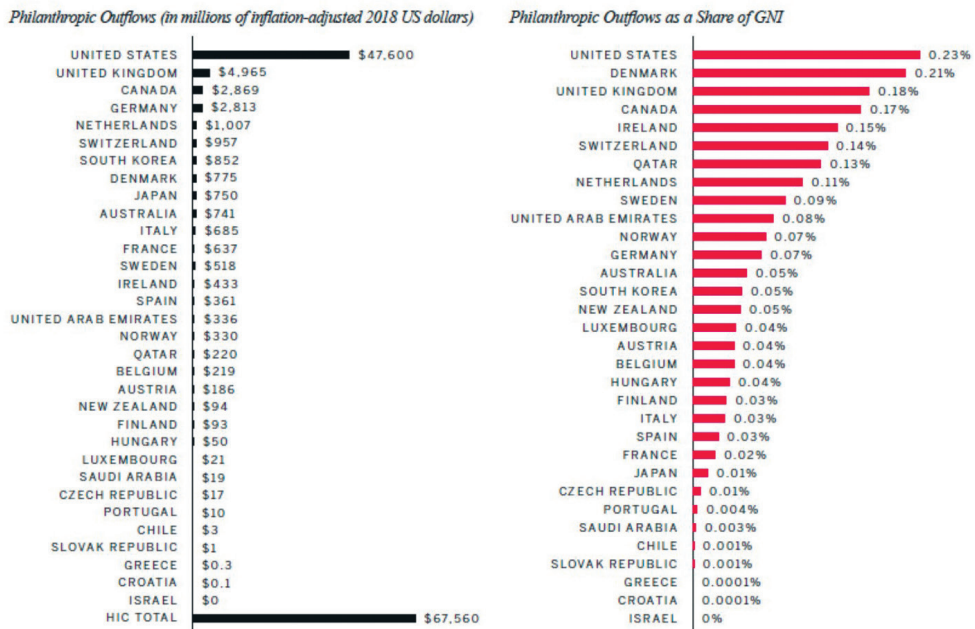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원을 받던 원조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이다. 한국은 1953년 OECD 산하 DAC의 주요 원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 원조를 받아왔으나 1999년 국제 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특히, 2010년 공적 원조를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정식 포함된 이후 ODA 지원 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림 3]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ODA를 통한 해외 원조뿐만 아니라 NPO/NGO를 통한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민간의 필란트로피 규모가 여타 다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는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국민 총소득 중 0.2% 이상을 해외 기부에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뿐이며, 영국,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에서도 민간 필란트로피는 전체 국민 소득의 0.10% ~ 0.18%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전체 국민 소득의 0.05%를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GNI 대비 해외 기부 규모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중동 국가(카타르, 0.13%; 아랍에미리트, 0.08%)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해외 원조 규모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앞선 일본과 비교해 볼 때, GNI 대비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0.05% vs. 0.01%).

[그림3]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 규모 비교



Sourc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Data: GNI from World Bank; Philanthropic outflows from various sources research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and shared by partner organizations for some economies. See Appendices for specific data sources for each economy in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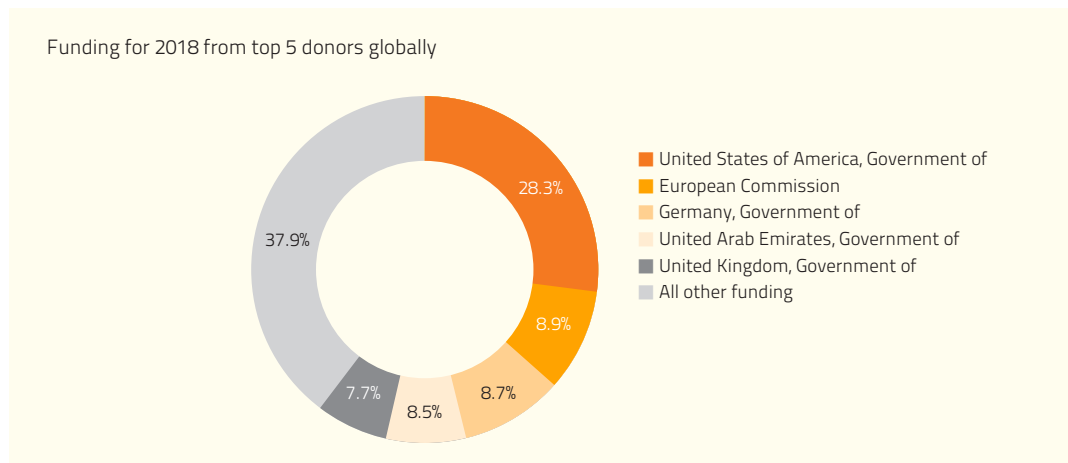
Note: HIC: High-income country

## 2. 국가 간 해외 기부 트렌드: Financial Tracking Service(FTS)

### 1) 해외 기부 트렌드: 공여국 및 수원국 현황

UN 산하 OCHA에서도 해외 기부에 관한 공여국 및 수혜국 현황을 F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국가 간 해외 기부 추이를 FTS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도 FTS 글로벌 기부 현황 자료(FTS Global snapshot for 2018)에 따르면 FTS 조사에 참여한 나라의 2018년 총 해외 기부 금액은 254억 달러(US\$)로, 기부 공여국 및 기관(donors) 중 최상위 5개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인데, 전체 해외 기부 금액의 62.1%를 이들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특히 미국의 해외 기부가 전체의 28.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유럽연합의 해외 기부는 8.9%, 독일 8.7%, 아랍에미리트 8.5%, 영국 7.7%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제 사회가 요청한 기부 요청 대비 실제 기부 대응 비율(appeals/response plans)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부 규모에 관한 국가 간 순위는 GPT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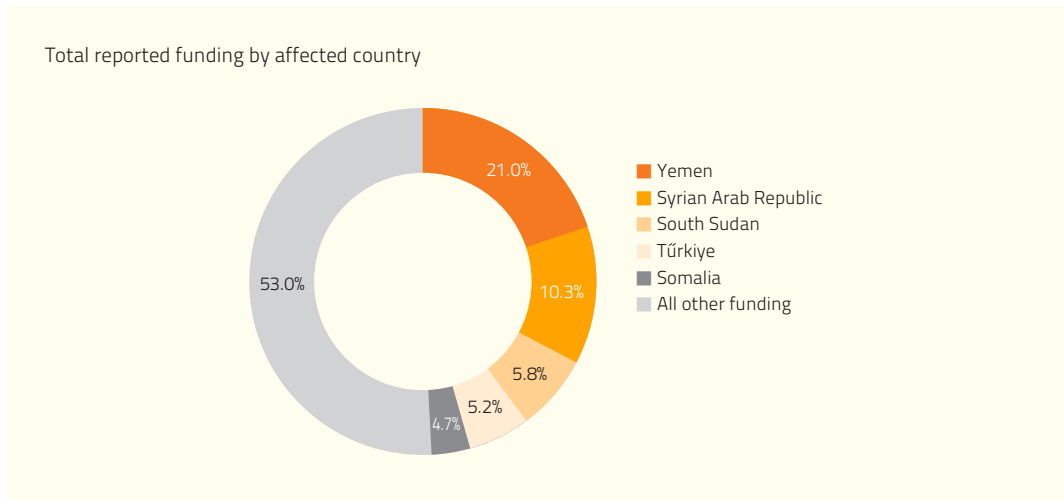
[그림4]. FTS 상위 5 기부 공여국 (2018년 기준)



출처 : FTS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그림 5]는 해외 기부를 많이 받은 나라 순서를 나타내는 도표로, 2018년 FTS 데이터에 의하면 해외 기부금을 수령한 수원국가(recipients) 중 가장 많은 해외 기부를 받은 나라는 예멘(21%)이며, 이어 시리아(10.3%), 남수단(5.8%), 터키(5.2%), 소말리아(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최상위 5개 국가가 전체 해외 기부금 중 45.9%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그림 5]. FTS 상위 5 기부 수원국가 (2018년 기준)



출처 : FTS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아래 [표 1]은 단일 국가 중 해외 기부금 수령 규모가 가장 큰 상위 10개 국가가 받은 기부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수령한 국가는 예멘으로 미국 달러 기준 총 490만 달러를 수령하였으며, 이어 시리아 210만 달러, 남수단 120만 달러, 터키 110만 달러, 소말리아 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총 4개국(예멘, 시리아, 터키, 레바논)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중동 혹은 서남아시아 국가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는 총 6개국(남수단, 소말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이다.



[표 1]. 해외 기부금 수원국가 상위 10개

수원국	수령합계 (US\$)	대륙
예멘	4,885,290,574	아시아
시리아	2,084,182,299	아시아
남수단	1,230,893,697	아프리카
터키	1,144,653,481	아시아
소말리아	1,024,511,768	아프리카
콩고	916,834,830	아프리카
레바논	861,708,805	아시아
에티오피아	835,736,658	아프리카
수단	708,307,128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689,827,665	아프리카

\*\* 본 표는 FTS의 자금 출처 자료에 기반해서 저자들이 직접 재구성한 것임

[표 2]는 공여국이 기부를 제공한 수원국을 분석한 결과이다. FTS 데이터 중 기부금을 수령한 수원국의 기부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27개 수원국(recipient countries)들이 총 32개의 공여국(donor countries)들로부터 기부금은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국가인 81개국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 독일과 스웨덴이 각각 47개국, 스위스 42개국, 캐나다 41개국 등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이 단연 많은 수의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제일 많은 나라에 해외 기부를 제공하며(23개국), 사우디아라비아(20개국), 아랍에미리트(7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은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40개국)에 이어, 노르웨이(29개국), 영국(28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많은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양한 나라에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해외 기부 공여국과 수원국가 (국가별)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중국	19	아시아	1	파푸아뉴기니
일본	3	아시아	23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에리트레아, 케냐, 레바논, 모리타니아, 몽골, 미얀마,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시에라리온, 시리아, 토고, 터키, 예멘, 짐바브웨
한국	13	아시아	3	카메룬, 에티오피아, 터키
쿠웨이트		아시아	5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터키, 예멘
파키스탄		아시아	1	
카타르	17	아시아	1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5	아시아	20	알바니아, 알제리, 베냉, 코모로, 지부티, 감비아, 가나, 그리스, 온두라스,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세네갈, 스리랑카,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7	아시아	7	앤티가바부다, 감비아, 요르단, 페루, 통가, 예멘, 짐바브웨
브룬디		아프리카	1	
오스트리아	20	유럽	2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벨라루스		유럽	2	라트비아, 베트남
벨기에	18	유럽	8	부룬디, 카보베르데, 콩고, 리비아, 말라위, 팔레스타인, 르완다, 세네갈
덴마크	22	유럽	16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케냐, 리비아, 말라위, 말리,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남수단, 수단, 스위스, 시리아, 우간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유럽	1	
핀란드	26	유럽	2	이집트, 르완다
프랑스	6	유럽	18	알바니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지부티, 도미니카, 과테말라, 아이티, 북한,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니제르, 페루, 필리핀, 세네갈,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독일	2	유럽	47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케냐, 북한,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예멘, 짐바브웨
아일랜드	24	유럽	11	콜롬비아,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북한, 르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이탈리아	11	유럽	18	알제리,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레바논,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팔레스타인, 필리핀, 세네갈, 통가,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리히텐슈타인		유럽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스, 북한
룩셈부르크	35	유럽	7	알제리, 볼리비아, 과테말라, 인도, 이탈리아, 라오스, 세르비아
네덜란드	12	유럽	8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21	유럽	28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이란, 요르단, 북한, 라오스, 레바논, 말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러시아		유럽	1	북한
스페인	9	유럽	3	알제리,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스웨덴	16	유럽	47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이란, 케냐, 북한, 라오스,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스위스	10	유럽	42	알제리,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티오피아,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북한,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멕시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페루, 세르비아,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공여국	GPT 순위	대륙	수원국 수	수원국가
영국	4	유럽	27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요르단, 케냐, 레바논,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예멘, 짐바브웨
캐나다	8	북미	41	알제리,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나, 아이티, 인도, 요르단, 케냐, 북한, 레바논,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르완다, 세네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1	북미	81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쿠라사오,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조지아,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케냐, 북한,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르완다, 세네갈,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통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호주	14	오세아니아	1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요르단, 라오스, 레바논,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태국, 통가, 바누아투
뉴질랜드	29	오세아니아	7	피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 부룬디(\$1,476,285, 2.1%), 에스토니아(\$23,229, 100%), 파키스탄(\$15,841,623, 12.9%)

[표 3]은 해외 기부 공여국과 수원국의 대륙별 분포를 요약하였다. 해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으로 총 19개 나라이며,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8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프리카(1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남미 국가들은 해외 기부를 제공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 속한 총 19개 국가들은 전 세계에 85개 수원국(291건, 공여국-수원국)에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였으며, 북미 두 나라(미국과 캐나다)는 총 89개국(122건)에게 해외 기부를 제공하였다. 아시아에 속한 총 8개 나라에서도 총 51개국(61건)에게 해외 기부를 제공하였으며, 오세아니아에 속한 두 나라(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총 15개국(20건)에 기부를 제공하였다.

유럽 국가가 제공한 기부 건수의 약 49%(143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29%(85건)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기부금을 제공하였는데 6.9%(20건)였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 해외 기부 건수 중 약 50%(30건)를 차지했으며, 37%(23건)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었다. 북미 국가들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 약 45%(55건)를 차지했다. 북미 국가의 해외 기부 중 약 26%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북미 국가(9.8%), 남미 국가(9%)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오직 아시아 국가(55%)와 오세아니아 국가(45%)에 대해서만 해외 기부를 제공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오세아니아 국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대륙의 국가가 해당 대륙의 국가의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해외 기부에 관한 일부 시각 중 특정 국가의 해외 기부가 특정 대륙에 있는 나라에만 기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각국의 해외 기부가 어느 한 대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대륙 및 나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해외 기부 건수 및 국가 수 (수원국과 공여국; 대륙별)

대륙	공여국 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아시아	8	23 (16)	30 (27)	2 (2)	3 (3)	1 (1)	2 (2)	61 (51)
아프리카	1	0	1	0	0	0	0	1
유럽	19	85 (23)	143 (36)	20 (8)	21 (9)	18 (5)	4 (4)	291 (85)
북미	2	32 (24)	55 (35)	3 (2)	12 (11)	11 (10)	9 (7)	122 (89)
남미	0							0
오세아니아	2	11 (10)	0	0	0	0	9 (5)	20 (15)

\*위 표는 공여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원국가는 중복 카운트 되었음.

\*\*수원국가 (총 127 국가) 대륙 분포: Africa 47, Asia 31, Europe 12, North America 17, South America 11, Oceania 9

자료는 기부 건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수원국 국가 수

## 2) 해외 기부에 대한 기부 주체별 현황 분석- FTS 2018 데이터 기준

FT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기부를 누가 제공하였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각국 중앙 정부 주체가 81.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정부 간 주체(intergovernmental)가 12.9%를 차지한다. 정부 간 주체의 예로는 유럽연합 집행 기구, 개발 은행(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UN 기구들이며 전체 기부액의 4.1%를 차지한다. 한편 민간 재단 및 개인들의 기부액 또한 2억 9천 4백만 달러(US\$)로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재단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립 재단에서부터,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도이체 은행(Deutsche Bank AG), 이케아 재단(IKEA Foundation)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 조직 이외에도 민간 조직에서도 해외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FTS 해외 기부액의 기부 유형 2018년 자료

기부자 조직유형	조직 하부 유형	기부액수 US\$	기부선언액 US\$
정부	중앙정부	\$20,660,059,491	\$144,550,015
정부간 조직	해당없음	\$3,267,109,348	\$1,508,311
NGO	국제	\$11,793,508	\$144,635
NGO	개별국가	\$4,673,007	\$0
특정되지 않음	해당없음	\$97,534,239	\$0
기타	해당없음	\$8,544,580	\$1,976,292
통합 기금	글로벌	\$3,353,433	\$0
통합기금	특정국가 기반	\$6,038,497	\$0
민간기관/재단	국제기구/재단/개인	\$199,552,266	\$282,800
민간기관/재단	지방/중앙조직/재단/개인	\$94,883,129	\$0
적십자	국가조직	\$100,000	\$0
적십자	국제조직	\$62,902	\$0
UN 기관	해당없음	\$1,047,521,661	\$0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donor-types/2018>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 2018년 해외 기부 상위 주체/기관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71억 9천 US\$로 전세계 기부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 정부 순이다. FTS의 기부금 산출 규모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 및 NGO/NPO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므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OECD에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위한 지원(일반적으로 ODA로 일컬어짐)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일부 ODA에 지원한 정부 지원금이 FTS 데이터에 중복 집계될 수 있다.

[표 5] 2018년 해외 기부금 상위 20개 주체/기관

기부자	자금액수 (US\$)	글로벌 총액 중 비중 (%)
미국 정부	\$7,196,510,189	28.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61,572,846	8.9%
독일 정부	\$2,207,901,353	8.7%
아랍에미리트 정부	\$2,168,953,900	8.5%
영국 정부	\$1,952,487,809	7.7%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1,642,852,990	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터키 소재 난민을 위한 EU 시설	\$899,835,781	3.5%
캐나다 정부	\$679,537,144	2.7%
스웨덴 정부	\$670,950,398	2.6%
노르웨이 정부	\$660,095,972	2.6%
쿠웨이트 정부	\$478,342,380	1.9%
일본 정부	\$474,160,244	1.9%
스위스 정부	\$435,589,993	1.7%
덴마크 정부	\$379,947,813	1.5%
네덜란드 정부	\$311,019,619	1.2%
벨기에 정부	\$251,092,28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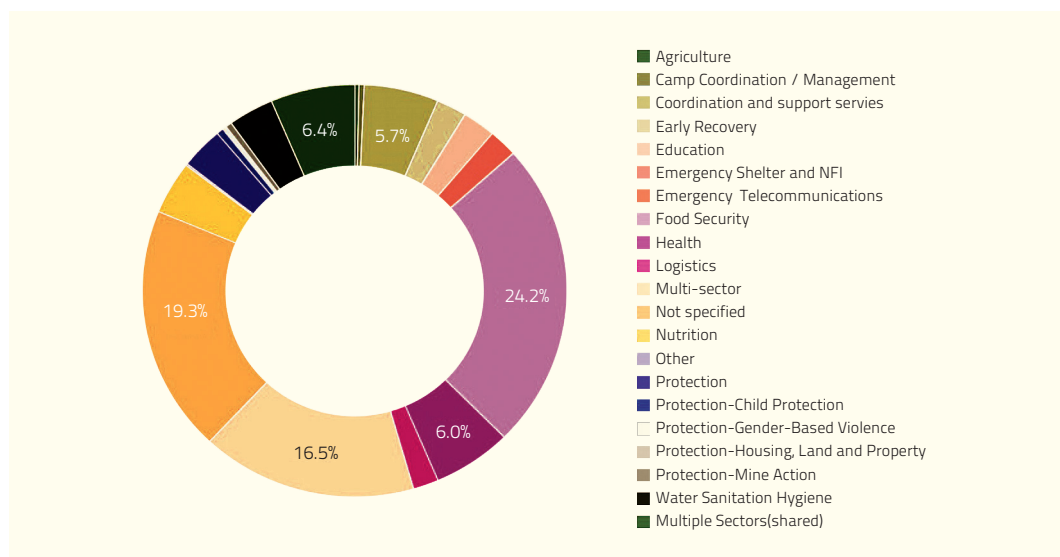
호주 정부	\$247,554,523	1.0%
이탈리아 정부	\$183,333,617	0.7%
프랑스 정부	\$135,559,834	0.5%
아일랜드 정부	\$133,597,716	0.5%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 FTS 기부금 출처 > 2018년도 "Funding by Source" 자료 기준으로, 총 64개 공여국가 및 해외 기구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 32개 공여국가와 그 외 32개 해외 기구 등이 기부하였다.

아래 [그림 6]은 2018년 해외 기부액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FTS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식량 안보에 대한 지원이 2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양 지원(19.3%), 복합 영역(16.5%), 농업 분야(6.4%), 보건(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기부금의 19.3%는 기부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아동 보호 및 젠더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해외 기부액의 사용 영역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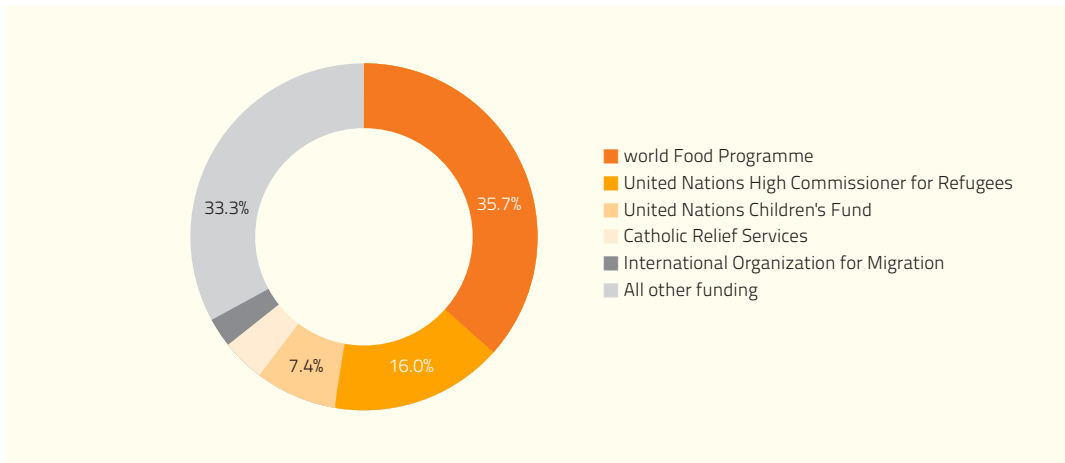


[자료 출처]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그림 7]에서는 한 국가의 해외 기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 정부의 해외 기부는 주로 UN 비정부조직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이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UN 난민고등판무관(16.0%), 유니세프(7.4%)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본 집계에서 유의할 점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기부금을 수령한 UN 산하 기관들은 일차 수령 기관들이며, 이들 수령 기구들은 이후 실제 집행 단체나 기구를 통해 기부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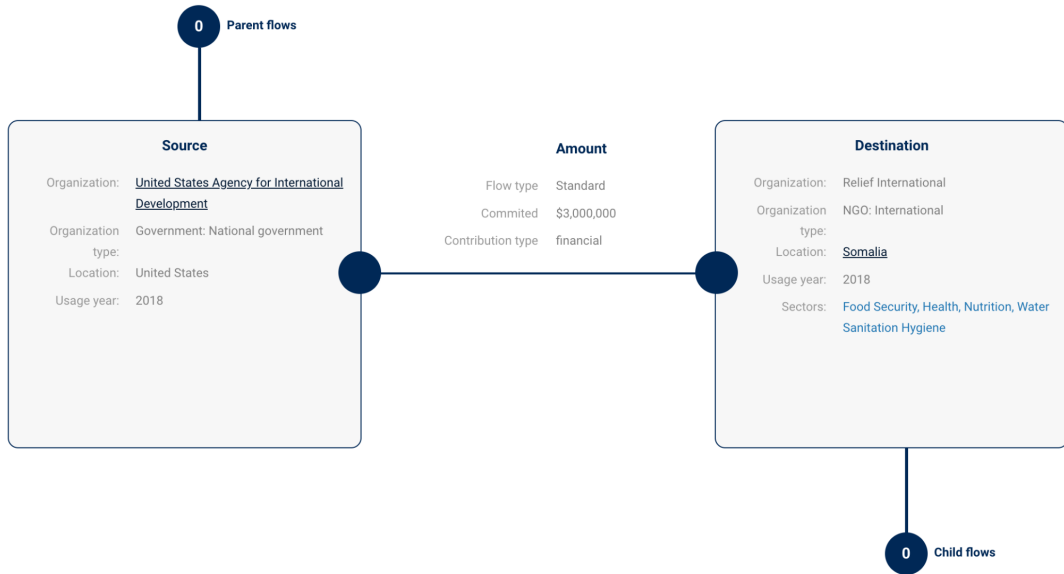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정부의 기부금 - 수령 기관별 집계



[자료 출처] <https://fts.unocha.org/donors/2933/summary/2018>

아래 [그림 8]은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을 미국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해외 원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기금 3백만 달러(US\$)는 구호 담당 국제 NGO인 릴리프 인터내셔널(Relief International)의 소말리아 지부에 제공되었으며, 본 구호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식량 안보, 보건, 영양, 물 위생 개선 등의 사업 분야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미국 국제 개발 협력 기구의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도



[출처] <https://fts.unocha.org/flows/193262?destination=/donors/8492/flows/2018>

### 3.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 산출 및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결합하여 해외 기부의 탈집중성 및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GPDI, Global Philanthropy Diversification Index; 이하 GPDI)를 개발하였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GPDI는 필란트로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당 공여국이 몇 개의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국가 분산도)와 수원국이 몇 개 대륙에 분산되어 있는지(대륙 분산도)를 총 해외 기부 금액(정량 가중치)을 포함한 경우(“GPDI-I”)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GPDI-II”)로 구별하여 보여준다. 정량 가중치를 포함한 지표(GPDI-I)와 포함하지 않은 지표(GPDI-II)를 구별하여 분석한 이유는 전체 해외 기부 규모가 크지만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기부를 제공한 국가와 상대적으로 전체 해외 기부 규모는 작으나 다양한 나라에 해외 기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다양성 지수 차이를 구별해 보기 위함이다.

첫째, GPDI-I은 전체 해외 기부 규모를 포함하여 수원국가의 다양성, 대륙 간 분산도를 측정한다. 각 국가의 해외 기부 규모가 클수록, 지원한 국가 수가 많을수록, GPDI-I 지수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되었다. 동일한 수의 수원국에 지원을 하는 경우, 6개 대륙 가운데 더 많은 수의 대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GPDI-I이 높게 산정된다. 둘째, GPDI-II는 해외 기부의 전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수원국 수와 수원 대륙 수를 고려하여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는 GPDI-I과 GPDI-II가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GDPDI 측정 수식

$$\begin{aligned}
 \text{GDPDI-I} &= (\text{정량가중치}) \times (\text{국가 간 분산도}) \times (\text{대륙 간 분산도}) \\
 &= \frac{1}{\text{GPT 해외 기부 총액 순위}} \times \left(1 - \frac{1}{\text{수원국 수}}\right) \times \left(1 - \frac{1}{\text{수원대륙 수}}\right) \\
 \text{GDPDI-II} &= (\text{국가 간 분산도}) \times (\text{대륙 간 분산도}) \\
 &= \left(1 - \frac{1}{\text{수원국 수}}\right) \times \left(1 - \frac{1}{\text{수원대륙 수}}\right)
 \end{aligned}$$

예) 글로벌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지수 I 의 예

- 미국의 경우 :  $(1/1) * (1-1/81) * (1-1/6) = 0.823$
- 일본의 경우 :  $(1/3) * (1-1/23) * (1-1/2) = 0.1594$
- 한국의 경우 :  $(1/13) * (1-1/3) * (1-1/2) = 0.0256$

글로벌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지수 II 의 예

- 미국의 경우 :  $(1-1/81) * (1-1/6) = 0.8230$
- 일본의 경우 :  $(1-1/23) * (1-1/2) = 0.4783$
- 한국의 경우 :  $(1-1/3) * (1-1/2) = 0.3333$

아래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외 총 기부 금액을 포함한 GDPDI-I 모델에 의한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 분석 결과 총 기부 금액이 높은 나라가 다양성 지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 순위는 미국(1위), 독일(2위), 일본(3위), 영국(4위), 사우디아라비아(5위), 프랑스 (6위), 아랍에미레이트 (7위), 캐나다 (8위)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기부 금액을 포함한 다양성 측정 지표에서는 미국이 0.823으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국가인 독일 0.39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미국과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보인다. GDPDI-I 모델에 따라 산출된 다양성 지표는, 기부 금액 정량 가중치가 수식에 포함되어 있어 해외 기부 금액이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의 절대 지원 규모의 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외 기부의 정량 지표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양성 지표 산출에 고

러한 다른 기준들의 영향이 제약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해외 기부 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기부의 다양성 지표를 산출한 결과(GPDI-II), 미국은 GPDI-II가 0.8230으로 해외 기부 규모 순위와 마찬가지로 1위였으나, 다른 나라의 다양성 지표는 GPDI-I 모델로 산출한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 다음으로 스웨덴이 0.8156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전체 해외 기부 규모에서는 16위(GPT 순위), 기부 금액을 제외한 다양성 지표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스웨덴 다음으로 스위스(0.08135), 캐나다(0.8130), 프랑스(0.7870)의 순으로 총 해외 기부 금액에서는 10위권 안팎에 있던 나라들이 다양성 지수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해외 기부 총액에서 순위가 높은 나라 중 다양성 지표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일본과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일본은 전체 기부 금액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으나, 다양성 지표 (GPDI-II)에서는 0.4783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페인은 9번째로 많은 금액을 해외에 기부하였으나, 다양성 지표에서는 0.444로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글로벌 필란트로피 다양성 지수(GPDI)

공여국	GPT 순위	수원국 수	수원국 대륙 수	GPDI-I	GPDI-II
미국	1	81	6	0.8230	0.8230
스웨덴	16	47	6	0.0510	0.8156
스위스	10	42	6	0.0813	0.8135
캐나다	8	41	6	0.1016	0.8130
프랑스	6	18	6	0.1312	0.7870
독일	2	47	5	0.3915	0.7830
노르웨이	21	28	4	0.0344	0.7232
영국	4	27	4	0.1806	0.7222
사우디아라비아	5	20	4	0.1425	0.7125
이탈리아	11	18	4	0.0644	0.7083

덴마크	22	16	4	0.0320	0.7031
룩셈부르크	35	7	5	0.0196	0.6857
아랍에미리트	7	7	5	0.0980	0.6857
아일랜드	24	11	4	0.0284	0.6818
네덜란드	12	8	3	0.0486	0.5833
일본	3	23	2	0.1594	0.4783
호주	14	13	2	0.0330	0.4615
스페인	9	3	3	0.0494	0.4444
벨기에	18	8	2	0.0243	0.4375
뉴질랜드	29	7	2	0.0148	0.4286
한국	13	3	2	0.0256	0.3333
오스트리아	20	2	1	0.0000	0.0000
중국	19	1	1	0.0000	0.0000
핀란드	26	2	1	0.0000	0.0000
카타르	17	1	1	0.0000	0.0000

GPDI는 한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 및 국가에 인도적/필란트로피적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단순히 집계해 결합해 보여주는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한편 자료 수집의 대표성 및 포괄성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각국의 해외 필란트로피의 다양성 수치를 통계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결과로서 인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추가적인 연구 및 근거 자료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20 GPT 연구와 UN OCHA의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와 공여국 및 수원국을 매칭해 봄으로써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국가 단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복합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외 기부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인 수준에서 해외 기부 경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PT에서 PCI 및 민간 필란트로피까지 포함한 해외 기부 규모를, FTS에서 정부 조직, 비정부기구, UN 기구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수원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외 기부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 GPT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포함된 총 47개 국가의 해외 원조 총액은 약 913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송금은 5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ODA(21%)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PCI 금액(13.3%)과 해외 민간 필란트로피(8.2%)를 합하면 21.5%에 달해, 이 또한 ODA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결과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기구 중심의 해외 원조액 집계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GPT 자료는 해외 기부 규모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의 필란트로피적 해외 기부 규모를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2위 국가(영국)와 비교해 약 10배 이상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원조 규모 상위 20개 국가는 모두 경제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한 나라들이 차지하였으나, 경제규모 순위 중간 그룹인 터키와 중국도 상위 20개 국가에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은 규모의 해외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은 ODA를 통한 해외 원조뿐만 아니라 NPO/NGO를 통한 민간 필란트로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FTS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국가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총 81개국에 기부금을 제공했고, 독일과 스웨덴 47개국, 스위스 42개국, 캐나다 41개국 등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이 단연 많은 수의 국가들에게 해외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특정 대륙에 위

치한 국가가 같은 대륙에 위치한 국가의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으로 총 19개 나라에서 해외 기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8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프리카(1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가 제공한 기부 건수의 약 49%(143건)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29%(85건)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아시아 국가의 해외 기부 건수 중 약 50%(30건)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37%(23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었다.

FTS 인도적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 2018년 해외 기부 상위 주체/기관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7조 1,900억 US\$로 전세계 기부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연합 집행기구, 독일, 아랍에미리트, 영국 순이다. 인도적 지원 사용 영역을 보면 식량 안보가 2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양 지원(19.3%), 복합 영역(16.5%), 보건(6.0%)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GPT 데이터와 FTS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해외 기부 다양성을 측정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를 개발하였다. GPDI는 해외 기부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 및 국가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산출하는 지표로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해외 기부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스위스가 이에 포함된다. 반대로 전체 기부 금액은 많으나 다양성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일본과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각국의 해외 기부 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 데 GPT데이터와 FTS 데이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GPT 데이터는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특정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조정/총괄하는 방식으로 자료 집계/보고를 하기에, 전체 해외 기부 전체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PT 데이터는 해외 기부에 관한 각 국가별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편 FTS 데이터는 각국이 기부 및 지원을 한 수원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기부 및 필란트로피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 또는 특정 국가나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간접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FTS 데이터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재난/위기 관련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의 관심 및 집중/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GPT와 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GPDI 모델(GPDI-I, GPDI-II)은 해외 기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지표 산출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 자료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V.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국제 해외 기부 트렌드의 포괄성, 보편성,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시도한 GPT 보고서와 FTS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는 GPT 보고서에 의한 연구가 제공하는 전체 해외 기부 규모를 비교하고, FTS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다양성을 추가해 분석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특성과 강점을 결합해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중심의 해외 기부를 파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 주체, 시민사회 주체 등까지 포함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해외 기부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정 편중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해외기부 다양성 지수(GPDI)를 개발해 제안한다. 본 지표는 해외 기부를 진행하는 현장의 담당자들은 물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국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침 및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해외 기부 규모 측정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의 부실로 인한 정확한 해외 기부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KCOC 및 KOICA, 국제청 등 해외 기부에 관한 중요 기관들이 한국의 해외 기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초 자료 조사에 있어서 국가적 기준과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기초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

기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 비교에 한국 자료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경제적 기여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에 한국의 관심 부재를 들 수 있다. FTS 데이터는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인데, 각국의 다양한 기부 지원 주체들이 UN 산하 OCHA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인도주의적 기부가 집계된다. 따라서 FTS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인도주의적 해외 기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FTS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실제 해외 재난 기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도주의적 해외 기부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FTS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에 3개 국가에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국내에서 발간된 보고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집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제 비교 연구에서 과소평가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 조사에 한국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UN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국제 비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 및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여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 및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에 비해서 국제 사회 비교 연구 및 지표 개발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서 보듯 한국 정부 및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기부 비교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문헌

- 아름다운재단 (2020, October). [글로벌 리포트- Global Philanthropy Tracker 2020]1. 한국의 해외 기부 현황.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0/10/08/%ED%95%9C%EA%B5%AD%EC%9D%98-%ED%95%B4%EC%99%B8-%EA%B8%B0%EB%B6%80-%ED%98%84%ED%99%A9-philanthropic-donations-outside-south-korea/>
- Kim, S. J. & Beautiful Foundation (2020, October). Regional report: South Korea. Global Philanthropy Tracker. <https://scholarworks.iupui.edu/bitstream/handle/1805/24846/south-korea-report21.pdf>
-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2020). Global philanthropy tracker. <https://scholarworks.iupui.edu/handle/1805/24144>
- UN OCHA (2018). Total reported funding 2018: Global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overview/2018>
- UN OCHA (2018). Total reported funding 2018: Totals by donor type. <https://fts.unocha.org/global-funding/donor-types/2018>
- UN OCHA (2018).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of 2018: Government donor snapshot for 2018. <https://fts.unocha.org/donors/2933/summary/2018>
- UN OCHA (n.d.). Details for flow ID#193252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https://fts.unocha.org/flows/193262?destination=/donors/8492/flows/2018>
- UN OCHA (n.d.). What is the 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and who to use it? <https://fts.unocha.org/content/what-financial-tracking-service-fts-and-how-use-it>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비매품/무료



9 788993 842609

ISBN 978-89-93842-60-9